



# 報 會 窓 同 總 空

發行人：全 春 雨  
編輯人：姜 容 求  
印刷人：孫 榮 壽

(住所)：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 7洞 1178番地 (郵便)：150-057 (電話)：02-845-1090 (FAX)：02-845-1091 (非賣品)

## 人 命 是 在 天 嗎 ？ 還 是 在 人 手 中 ？

人命은 在天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려 있어 人力로는 어찌할 수 없이 하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科學文明的 발달과 더불어 産業社會에서 情報化 社會로 전환되는 時代에 살고 있는 우리는 無力하게 運命論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人生 60이던 고려장했던 時代도 있기는 하지만 20代에서 어린 60代가 지난 지금 지나온 人生을 뒤돌아보면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자문 자답에 보면서 후회막급이 아닐 수 없다.

은 국민이 전란으로 절망하고 방황하던 시절 무엇이 값진 삶이며 어떻게 해야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 그때 젊은이들의 고민이었다. 나는 勇躍 후퇴 하늘에 꿈을 안고 不死鳥가 되어 조국 하늘을 지키고자 空軍士官學校의 문을 두드렸다.

所定の 교육과정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수월비행장에 配屬되었다. 그 당시에는 Reciprocating(프로펠러) 시대에서 Jet엔진 시대로 轉換되는 過渡期로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람의 對象이 되어 최초로 Jet 과정 비행교육도 이수하게 되었다. 在校 시절에는 선진국의 Daily memorizing System 도입으로 매일/매주 시험을 치러 성적은 25명씩 고반을 4개로 편성, 경쟁심을 유발케 하는 힘든 hard training 과 교육훈련을 받았다.

當時는 休職 卽後에서 進職時體制로서 安全의식이나 안전절차들은 한갓 거주장스러운 것이었고 無知에서 오는 망연이 판치고 있을 때였다. 美 공군교범의 정상/비상절차를 익히면서 많은 試行錯誤를 거듭하고 조종사들의 회생으로 엄청난 代價를 지불하고도 그 實效를 거두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명과 항공기의 손실을 가져와야만 했다. 安全에 對한 무지와 안전의식 결여로 安全 무중지대에서 살았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편대비행 Scheduling도 경력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 즉석에서 눈에 띄는 사람으로 편성을 한다거나 실무장 500파운드 폭탄을 장착하고도 SOP를 무시한 밀집 편대대형으로 이륙한다든가 1, 2번기를 동기생끼리 편성 공중에서 무장폭탄에 불균기 이루어진다든가, 수송기 경우는 동기생을 정·부조종사로 편성 임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최악의 경우 결실이나 판단의 오류를 유발했던 것 등등 여러 분야에서 안전을 고려치 않은 임무수행이 적지 않았었다.



全 春 雨(6기)  
· 總同窓會長  
· 前 空士學校長

팔자의 경우 잊지 못하는 第2의 出生으로 기억되는 한 사례로 수월비행장에 배속되어 '59년 7월 10일 이륙시간은 13시 기온이 34℃를 오르내리는 삼복더위에 500파운드 폭탄 2개를 F-86F "세이버" 제트에 장착하고 2번기로 밀집편대대형으로 이륙하게 되었다. 9,000FT 완주로 절반 가까이 되는 3,400FT 정도 이륙완주가 소요되어야 nose-up되어 이륙되는 상황인데 nose-up의 시기가 되었는 데도 편대장 K대위는 나만 할것보며 어찌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열심히 편대대형을 유지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當時는 조금이라도 편대대형이 잘 유지되지 않으면 비행 후 Debriefing에서 氣合을 받는 것이 常例였다.

그런데 웬일인가 Power가 조금씩 줄지 않는가? 나는 앞을 보니 완주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 그대로 Power로 넣으면서 계속 이륙을 시도하고 있는데 조종간을 더 땡기면 失速으로 급방 떨어질 것 같고 덜 땡기면 완주로 저지망(나일론 밧줄로 엮은 1m 20cm 정도 높이로 만약 항공기가 활주로를 지나치는 것을 막는 장치에 걸릴 것 같아 숨을 죽이고 간신히 살짝 지났을 때 내 기억으로 불과 20~30cm 정도의 공간 높이로 넘어 간듯해서 겨우 살아남게 되어 이륙 후 3, 4번기 편대집합이 이루어져서 정침 후에 3번기가 편대형 임무를 代行하여, 무사히 night mare(승진사격장) 목표로 폭격하여 구원하여 G-Suit 조종복이 땅에 흠뻑 젖은 채 대대로 돌아와보니 이것이 웬일인가! 지상에 있던 同期生 少尉 4~5명이 "콘크리트 맨바닥에 깔려있어 기압을 받고

있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나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제야 알아차리고 화가 나서 大隊長 H중령님과 선배 조종사들이 다수 있는 데도 개의치 않고 고함을 버럭치르면서 겨우(九死一生) 살아왔는데 편대장이 임무포기의 결심으로 수신호나 Radio를 통한 임무포기 지시도 없었기 때문에 완주로 저지망에 걸려 죽을 뻔 했는데 "너희들 죽더라도 소위 때는 절대로 죽지마라, 죽어서도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가"하며 항의했다. 편대장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동기생들은 바로 해산되었다. 나는 편대장 K대위를 찾았다. 바로 열방에서 한가로운 잠기를 두고 있었다. 나는 항의했다. "편대장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보시니 未安한 척하며 아무말이 없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이 전 소위 아까는 미안했다."고 하면서 사과했다. 그 비행기는 이륙하기 위해 nose-up이 되지(기수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상에서 정비사들이 수차 점검해 보았으나 결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후환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편대장이었던 것도 너무 smooth하게 nose-up하느라 기수가 올라오지 않으니 결심하는 시간이 극히 짧아 활나의 판단과 결심이 어렵다는 것은 짐작이 간다. 그러나 편대장이란 중중지휘관이기 때문에 항상 요기를 먼저 생각해야 했으며, 활나의 순간도 요기를 먼저 고려한 조적이 나 지시,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leader일 것이다. 중무장 임무는 3초 간격 단기로 이륙했어야 했고 목적상 편대 이륙이라 하더라도 요기를 먼저 생각하는 편대장의 기민한 판단과 조적이 있어 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난날을 회상해 본다.

따라서 나는 바로 7월 10일 13시 경이 나의 第2의 出生일로서 그날로 새로 태어난 나이를 계산해 보니 벌써 40이 넘는 壯年이 되었다.

어찌 나 한 사람뿐이라! 조종사들이면 대개가 3~4회 혹은 그 이상 다들 死線을 넘나들었을 것이다.

나도 이제는 끝이다 하고 느낀 찰나 2, 3번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스쳐 총돌 직전 2~3회 정도로서 死線을 넘은 최초의 第2의 人生을 소개한 것이다. 31년간 비행생관 4,750시간의 전폭기(T-33)교관, F-86F, F-5A/E, F-4D/E)로 일회를 1시간 10분으로 계산한다면 4,070회회, 이만큼 비행하면서 Tire Flat(뽕구) 한번 나지 않

고 무사고 비행을 할 수 있었음을 天佑神助요 또한 엄청난 運이 있었는 것으로 기억된다. 그 중에 수많은 난관과 아찔한 순간들을 경험했고 한밤중 은하수를 보면서 순식간에 저지하는 전파소리(아마 정전기현상)에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공중사격 중 DART 표적의 경인 쇠줄이 끊어지면서 총돌 직전의 아찔했던 순간들을 넘기면서 용케 生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해마다 6월 6일 현충일 이틀 전에는 국립묘지를 참배하게 된다. 우리 "클러스"는 어느 "클러스"보다 과도기로서 교육훈련의 시험대상이 되었던 탓인지 중·소위에서 회생자가 가장 많았다. 작전 훈련 중에 폭탄을 20대 중반에서 못 다핀 꽃과 같이 순직한 동기생수가 10여명으로 회생 비율이 어느 기생보다 높았다.

동기생 묘지에 해마다 꽃을 놓으면서 바로 이 자리가 내가 누워 있을 자리라고 생각하니 더욱 故人에 대한 애도의 마음과 고귀한 忠魂에 고개 숙여 깊이 명복을 빌고 또 그 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위로의 마음의 글을 드리게 된다.

世界最 先進國인 美國의 中等 교육 先를 보면, 첫째 강한 意志 力 向上, 둘째 國旗에 대한 존경심, 셋째 共同體 一員으로서의 責任과 責任, 넷째 사람, 다섯째 安全教育, 여섯째가 학력제고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학력제고는 제일 끝이고 그 다음이 안전교육이 들어 있다. 이 안전교육의 不在로 인해서 해마다 화재, 교통사고, 비행사고, gas를 비롯한 지상사고 등으로 천문학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 복잡하고도 불안정한 시대에 살면서 안전불감증이나 안전부재나 하고 탓만하지 말고, 말보다 안전수칙을 생활화하여 대비하고 實地에 옮길 수 있는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안전교육을 더 교교육에 넣는 것은 물론 가정교육부터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實踐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동방의지국이란 말을 사라진지 오래되어 국도의 리근主義者들로 붐고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파렴치한 모습에서 벗어나 기초질서와 공중도덕을 존중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중도덕을 지키는 시민이 되어 忠孝사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참삶이라고 생각한다.

人命은 在天이 아니라 주어진 人生을 保存하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육체건강과 정신건강 관리를 잘하여 많은 불행이 총살할 수 있다는 것이 곧 父母에 孝道하고 국가에 기여하며 世界의 一流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어려운 IMF시대를 극복하는 길도 될 것이다.



姜容求(6기)  
· 總同窓會 事務總長

# 精神文化의 暢達

## 1. 머리말

동서고금 인류문화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윤리도덕이 잘 실천되고 지켜지는 나라는 눈부신 발전과 번영이 있었으나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질서가 잡히지 않은 민족은 망하고 말았다.

修身齊家 治國平天의 이념과 뿌리도 결국 인간의 예의범절로써 사회생관, 국가생관, 國交생관에 이르기까지 바른 예의범절의 규범을 잘 지켜 나갈 때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고 선생은 있어도 스승이 없다는 삭막한 사회, 나라나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를 나서 길러준 부모를 살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 죽이길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여기는 人命을 경시하는 세태, 남의 귀여운 부녀자를 잡아다가 잡아먹는 인신매매 같은 인간성 상실, 퇴폐 향락을 사회병리 현상은 우리 사회를 심각한 위기상황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제 좌시할 수만 없다.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증상의 정신적 지주가 됐던 忠孝禮의 사상을 다시 일으켜 도덕성을 회복할 때 정신문화의 뿌리가 내리고 사람답게 사는 가치관의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거 조상들이 지켜 왔던 충효예를 살피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해서 이 급격히 변하고 세계화로 가는 삶의 지혜를 삼았으면 한다.

## 2. 忠의 根本

儒家思想에서 忠孝는 人倫의 大本이라 여겼다. 그러므로 古人들은 충과 효를 도덕의 표준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실천덕목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조상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당위요 使命이며 보배요 자랑으로 여겼다.

충과 효는 글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그 바라는바 뜻이 같으므로 忠孝一致를 부르짖었다. 그러므로 효자문 중에서 충신이 나온은 당연한 일이며 그 결과 충하면 불효함이 없고 효하면 불충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충과 효에는 輕重이 있었다. 小義보다는 大義를 중하게 여기는 것은 군주에 대한 충을 개인적인 부모에 대한 효보다 중하게 여긴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忠則靈命이요 孝當竭力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신하가 자기 집처럼 節義를 다하여 봉사하면서 임금님의 몸을 평안하게 하고 나

라를 부유하게 하여 그 존엄과 영화를 보전하며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충성이라 했다.

## 3. 三國과 朝鮮朝의 忠思想

일반적으로 조선 유학이 지니는 윤리문화의 인도주의 정신은 중앙인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정되었고 그 핵은 충과 효였다. 물론 이 충효정신은 조선조에 한정된 윤리문화의 정신만이 아니라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충효정신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였다.

단적으로 말하면 고구려의 무용정신, 신라의 호국정신, 백제의 정의정신은 충효정신의 표현이었다.

고구려는 서기 327년에 太學이라는 국립학교를 두고 詩, 書, 易, 春秋, 禮記의 五經과 史記, 漢書, 後漢書의 三史 등을 귀족의 자제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충효사상을 고취시켰고 427년 이후에는 수도와 지방에 경당이라는 사립학교를 세워 미혼 청소년들에게 밤낮으로 글과 무술을 닦게 함으로써 충효사상을 크게 함양했다.

또한 신라에서도 충효정신은 윤리문화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왔다. 특히 화랑도나 공류도에서도 충효의 정신을 敎化的 핵심사상으로 여겨왔다. 최치원의 淸邱碑文에서 표현되고 있듯이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서 나가서는 국가에 충성하다」는 것은 신라인의 윤리정신이였다.

그리고 三國遺事에 聚徒選士 孝悌忠信으로 가르쳤으니 이 효재충신은 교화와 정치의 大道였던 것이다.

신라의 국학에서도 論語와 孝經을 기본 자료로 누구에게나 읽혔다고 한다. 이처럼 신라의 정신은 충효로 수련된 것이었고 교화된 것이었다.

한편 백제의 정신도 尙武의 용성과 불교적 戒律性 그리고 유교적 충효정신이 주 요소가 되었고 이 삼 요소를 일관하는 것이 윤리적 예의관념이었다고 한다.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 있어서도 충효의 정신이 계속되었다. 제6대 성종은 12牧에 경학박사를 두게 한 다음 下敎하여 말하는 가운데 「제공과 인격을 겸비하여 임금을 섬기는 충의 시작이요 立身揚名하여 부모를 드러냄은 효의 끝이다」라고 하며 충효를 장려하였다.

그리고 조선조에 들어서서 세종대왕 때에는 삼강행실도를 편찬한 행하게 하여 「가정에서는 충효를 전하고 세세로 仁放을 지킨다」는 정신을 취하여서 충효를 조선조 윤리문화의 기강으로 삼았다.

## 4. 孝의 根本

원래 孝자는 老의 줄임 글자인 老와 子의 결합문자로 동양에서 孝를 百行의 根源, 德의 根源, 人道之本, 行仁之本으로 동양사

상의 지주가 되어 왔다.

孝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다. 부자 상호간의 쌍무관계가 아니라 부모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자식의 일방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윤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孝行을 분석해 보면 부모에 대한 것과 가정에 대한 것과 타인에 대한 것 그리고 자식의 일체의 행동에 관한 것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부모에 대한 효도는 생전과 사후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는데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의 효도는 부모를 섬기는 일이다.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恭順, 侍中, 扶養, 安樂, 父母之道의 실천 등 다섯 가지 항목을 내포하고 있다.

부모에 대한 시중은 항상 부모 곁에 있으면서 부모의 잔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이때 시중은 자식이 친히 하여야 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부모를 섬기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이다. 부모에 대하여 공손하고 시중을 잘 들으며 부양을 잘해도 부모의 마음을 안락하게 하지 못하고 즐겁게 하지 못한다면 효도라고 할 수 없다.

어떠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든 간에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만 한다면 이것이 부모를 섬기는 일이다.

論語에 효에 대해서 공자가 그 제자나 그 시대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 답한 것으로 효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첫째, 맹의자라는 노나라 大夫가 효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부모는 여섯 자리가 없게 하는 것이 라고 했다. 매마침 옆에 있던 번지라는 제자에게 공자는 無道라는 뜻을 이렇게 설명했다. 「부모가 계시실 때에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지면 잠사지내며 예로써 제사지내지니라」

둘째, 맹의자의 아들 맹부박이 효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부모는 오직 자녀가 없거나 없을까 근심한다」고 대답했다. 자식이 부모의 이러한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으면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고 조심하게 될 것이다. 자연 효가 된다고 주자는 설명했다.

셋째, 子游란 제자가 효에 대해서 물으니 공자는 「요즘의 효란 것은 부모께 음식을 잘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개나 말 같은 짐승도 먹여 기르니 공경하지 않으면 무엇이 다르라」고 대답했다.

## 5. 맺는 말

일찍이 동양에서는 우리 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요 君子의 나라라고 하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요인이 근원, 자

조, 협동의 새마를 정신과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삼았던 충효예의 전통적 가치관에 그 근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급진주의 등의 급변하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물질생활의 변태적 결과로서 가치관의 혼란과 전통 윤리식의 퇴조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려는 노력보다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의식이 앞서 인간이 누려야 할 인격을 나의 물질적 힘으로 누릴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사상이 널리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나만 존경받으면 되고 남은 무시해도 무방하다는 인격 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민족역량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제 충효예의 사상을 바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며 국가 내지 인류를 사랑하는 세계화의 전통적 가치관을 재정립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결코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변화를 수긍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을 찾아 함께 살아보자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룰까 갈 가치관의 문제는 관념이 아니라 사회화를 위한 실천이다.

우리 민족의 행동지표가 전통 문화를 떠나서 찾을 수가 없으므로 변화된 문화의 충격을 견디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전통적 가치관을 회복시켜야 한다.

덕은 도를 행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도를 행한다고 함은 덕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도를 실천하여 덕을 얻는 것은 후천적인 것이며 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선천적인 덕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어지러운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전통적 가치관의 충효예를 바탕으로 한 정신문화를 정립, 윤리도덕적 정신문화를 꽃피우는 것이다.

인물이 좋고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전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따라서 물질적 욕구를 억제시키는 것보다 이를 사회적 욕구에 맞도록 길들임으로써 인간이 지닌 양심을 통한 순수성을 지속적으로 일깨우고 갈고 닦아 나가야 하겠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자성의 눈으로 자신을 가정을 이웃을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얻은 새로운 현실인식과 충격을 깊이 음미하여 상실된 우리의 도덕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이 선진화의 길이며 세계화의 길인 것이다. 선진화는 정신적 도덕성을 무시하고 물질적 발전만으로는 이룩하지 못함을 깊이 통찰하여야 한다.



# 短 信

21세기 항공 우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항공선진국으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위대한 국민의식 전환의 계기가 될 범국민적 축제의 장인

서울에어쇼 '98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서울공항(성남)에서 개최됐다.

서울에어쇼 '98에서는 세계 각국의 최첨단 항공기 및 관련부품들이 한 자리에 전시되어 항공우주산업 선진국들의 최신 기술들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기업의 항공우주산업 분야 신규부자를 유도하고 외국업체와의 교류를 증대시켜 나후된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본 궤도에 올리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행사기간 중 처음 4일간은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관람객의 날을 운영하고 나머지 3일간은 일반인이 입장하여 관람할 수 있는 일반 관람객의 날로 운영하였다.

이번 서울에어쇼는 지난 '96년 1회 대회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가 명예대회장을, 그리고 국방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동대회장을 맡는 등 범정부적인 조직 속에 행사준비는 공군이 주체가 되고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이 되어 이미 올 1월에 서울에어쇼 '98 공동운영

## '98 서울국제에어쇼 성대히 개최



Black Eagle의 곡예비행

본부를 발족시켜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서울에어쇼 '98은 크게 실내·외 전시회, 시범·곡예비행, 항공우주심포지엄, 전자전

및 모의훈련체계 세미나 등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에어쇼 '98에서는 지난 '96년 서울에어쇼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군유일의 곡예비행팀인 블랙이글이 환상적인 곡예비행을 펼쳤다.

현재 블랙이글이 보유하고 있는 곡예기종과목은 50여 가지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본 곡예기종과목 외에 최근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난도의 다양한 곡예비행이 선보여졌다.

이 밖에도 우리 공군의 훈련기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제작된 KTX-1이 최초로 공중시범비행을 보여 관심을 모았으며, 미국의 F/A-18, F-14, F-15, 러시아의 Su-35UB, Su-29, Mi-26, Mi-28, KA-32, 프랑스의 Rafale, Bo-105, 캐나다의 Challenger-604 등 세계 유수의 항공기들이 시범 및 곡예비행에 참가하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티와 눈을 의심케 하는 신기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공군은 10월 28일 국방부장관과 과학기술부장관, 참모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연사, 그리고 많은 학생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를 대비한 항공우주력 건설 및 기술발전 조망"을 주제로 한국 종합무역 전시관(COEX) 4층 회의실에서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1세기를 대비한 항공우주력 건설과 기술발전 조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심포지엄은 '항공우주력의 역할', '항공우주시대의 안보환경', '항공우주시대의 기술발전 조망', 그리고 '항공우주 무기체계 기술 발전 및

조망'이라는 4개의 본과로 나누어 국내외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개최

- 21세기 대비 항공우주력 건설 및 기술발전 조망 -

박은택 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21세기에는 전쟁 수행공간이 공중과 우주영역으로 급속하게 확대될 것이며, 미래전은 항공우주력이 주축이 된 첨단 정밀 과학전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며, 따라서 미래의 안보환경 변화와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민족의 항구적인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항공우주력 건설에 배전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은 항공우주 정책 및 전략, 항공우주력 및 과학기술의 발전방

향을 모색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군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21세기를 대비한 항공우주력 및 공군력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연제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96년 제7회 심포지엄부터는 국제적 규모의 범국가적 행사인 서울에어쇼와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항공력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방향 정립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3면에서 이음)

■ 朴雄鎭 詩人(4기)은 지난 10월 30일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 600인 협회 顧問으로 추대되었다.

서울 定都 600년을 기리기 위하여 1994년 서울 시민으로서 한국을 빛낸 예술인, 체육인,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원봉사를 통하여 시민의 모범이 된 600인을 선정하여 자랑스러운 서울시민 600인 협회를 결성한다 있다.

이번에 고문으로 추대된 사람은 이철승(서울 평화상 문화재단 이사장), 강영훈(전 적십자사 총재) 등 3명이다.

■ 李永淳(19기, 공군사관학교

비행교수)는 지난 9월 10일 「하늘이 받아준 사람」이라는 수필집을 출간하였다. 1970년 여의도 비행장에서 초등비행 훈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8년간 비행생활하면서 체험한 내용이다.

전후조종사로서 인체 생리의 한계점을 넘나들며 鳥人의 視點과 思考로 보다 높은 人生을 헤아려보는 珠玉같은 이야기로 후배 조종사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며 일반 독자들에게는 조종사와 공군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항공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 수필집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星武人 先後輩님들

이 힘써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에서는 지난 9월 19일 역대 지휘관 참모를 초청 부대발전에 대한 제반 고견과 선후배 간의 전우애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부대 현판소개, 간담회, 친선 체육대회, 연회순으로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전대 창설부터 후원을 해온 지역단체장 모임인 한일회 회장단이 참석하여 더욱 자리가 빛났다.

■ 金錫勳(37기)은 지난 10월 16일 宿患으로 別世하여 大田 國立墓地

에 安葬되었다. 冥福을 빕니다. ■ 金宗煥(3기)은 지난 11월 20일 宿患으로 別世하여 大田 國立墓地에 安葬되었다. 冥福을 빕니다.

■ 李元甲(2기)의 주수변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31 방화삼익APT 409동 202호



# 성서의 대예언



정 해 영(1기)  
· 평동자문위원

지난 6월 18일 오후의 일이다. 문상길에(삼성의료원) 3호선 전철을 타고 강남지역을 가던 중 차 안에서 "성서의 대예언"이란 책을 한 권 받았다. 흰색바탕에 연두색 띠를 두른 표지에 130면이나 되는 비매품 책인데 30전후로 보이는 아가씨 손에 10여권이 들린 채 회망자를 찾아 그냥 주고 다녀왔으나 손을 들어 받은 이는 어떤 청년 한 사람과 필자뿐이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더구나 그 제목이 말해 주듯이 미래에 대한 "성서의 대예언"이라 뻔하기는 힘이 있었고 쉽게 읽어지면서 기대감도 남달랐다. 왜냐하면 우리 겨레가 담판하고 있는 6·25 이래의 국난(IMF 환란 : 국제통화기금체제)을 극복할 비결이라도 숨어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애절한 바람 같은 것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다.

이제 그 한 토막만(총 11항 중 7번째) 인용해 보면 "적그리스도와 666표"라는 것인데 계시록 13장에서 인용하고 있었다. 즉, 주민등록증이나 전자카드에 개인별 고유번호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입력되는 전자 바이오 칩에도 개인별 고유번호가 주어질 터인데 이 개인별 고유번호에 적그리스도의 이름 숫자인 666이 더 추가되어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아니면 666 대신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갈 것이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의 예는 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숨여 명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 계13:17~18" 여기서 666이란 숫자를 도출하기 위하여 아라비아 숫자(AC60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세워진 사라센 제국의 문화산물)이 전자 사용되던 영어 알파벳의 숫자와 한 것을 대입해 보면 6의 배수로 규칙적인 배열이어서 알기 쉽고 재미있다. 즉, a-6 b-12 c-18 d-24..... x-144 y-150 z-156인데 가림 인간도 죄가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이다.

예시-1. PEOPLE(96+30+90+96+72+30) + SIN(116+54+84) = 666(지옥)

그런데 컴퓨터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전세계를 지배하는 도구로 쓰이게 된다는 것이다. 후 3년 반(대환란 기간) 동안 컴퓨터는 악령의 도구로서 쓰임받아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모든 신상명세를 기록하고 보관할 것인데 이때의 컴퓨터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의 명단이 지옥행인 셈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가겠지만 적그리스도가 전세계를 지배하는 후 3년 반 때에 이마에나 오른손에 전자표를 받

고 적그리스도의 컴퓨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시-2. COMPUTER(18+90+78+96+126+120+30+108) = 666(지옥)

한편 김일성은 악랄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 666이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영어로 표기에 쓴 예도 소개하고 있다.

예시-3. GIMILSUNG(42+64+78+54+72+114+126+84+42) = 666(지옥)

사탄은 헨라어로 계산한 경우 666이 나오며 사람이 많이 살았하였던 네로 황제도 666이 나오며 로마 카톨릭교회 교황의 관에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써어 있는데 역시 666이 나온다라는 것이다. 교황은 세속적인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수많은 개신교도들을 고문하고 죽인 적이 있어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정보화시대에 들어가는 시점이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번호나 신용 카드 번호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컴퓨터는 지옥을 뜻하는 666이기 때문에 지금 입력된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은 전자표의 번호가 입력될 때에 동의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마음껏 컴퓨터를 이용하되 후 3년 반 동안 이마에나 오른손에 바이오 전자칩(666표)을 받으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관찰하는 컴퓨터에 이름이 등록되므로 이를 피하라는 것이다(지옥행).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적자이므로 적그리스도의 컴퓨터에 등록되기 위하여 이마에나 오른손에 전자표를 받아서는 안되며 경배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예속 불가).

지금부터 적그리스도의 전 3년 반 동안까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살기 좋고 편할 것이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타락과 부패를 불러들여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어쩌면 IMF환란과는 시련이 어찌구니 없게 밀어닥친 것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오히려 구원이 이르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해명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의 책적으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분발해야 할 이유이다). 마지막 때에 풍요 속의 폐허(영적)에서 죄를 지으며 사는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이라면 IMF환란을 겪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죄이 있을 뿐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어서 주제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김정일에 도전"이란 제하의 조선일보 색연필란 기사('98. 6. 30.)에서 간사시대 이명화 교수(43세)의 용기있는 제의를 인용해 보기로 한다. 이 교수는 오

는 7월 26일의 북조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국회의원) 선거 때 김정일이 후보로 추대된 제666호 선거구에서 출마한 것이며 7월 3일까지 오사카 조총련 본부에 입후보 신청용지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 공시일인 12일까지 입후보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부정선거로 규정, 항의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왜 하필이면 666호 선거구일까?라는 점과 감히 북한은 제1인자인 김정일 후보 추대지인 선거구에 도전하여 민주화시키려는 기발한 발상과 이 교수의 감한 집념과 의지의 표현이 놀랍다는 것이다. 이미 발송불가로 보도된 바 있지만 이는 마치 폴리악과 같은 김정일 우상화의 허구를 흠집내게 한 다투식 폐거로 영구히 기억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화시대의 침략(북한식 폐쇄주의)은 금이 아니라 흠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교수로 말하자면 '91년 4월부터 8개월간이나 평양에 유학한 전문가로서 저들의 허구에 찬 생판상태를 깊이 관찰해 보고 실망한 나머지 조총련에서 즉시 탈퇴한 위인이다. 그후 '93년 6월에 서울로 초청되어 가진 강연을 직접 들은바 있어서 신뢰가 가는 인물이다.

그때 서투른 한국어로 한 첫마디는 "북한의 2천만 동포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라는 음소에 가까운 호소조의 반문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사회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창출했다기보다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봉건 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북한 경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총격적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적절한 것이라는 그 당시의 평가였다.

따라서 그가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사람의 삶 보내기 운동이었는데 정작 오아돌인 쌀을 복속하려고 조총련측 장구를 다시 두드렸지만 거절당하자 이제는 역사와 진실을 알리는 일부터 힘써야겠다는 생각에서 "북한 민주화운동"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는 행동과 인물이다. 전체주의 조직과 이데올로기 때문에 소외된 인간을 구하는 일이 경제에서보다는 정치적 민주화쪽이 보다 급선무임을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그의 666 선거구를 향한 도전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본 발상이며 실력 그것이 이번에는 수포로 돌아간다면 합치라도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계속적인 과녁으로 삼아 정면으로 공세를 취한다면 기필코 민주화의 과제는 성취되고 평화통일의 실마리는 잡혀갈 것으로 확신해 본다.

소위 햇볕론의 선행조건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명실상부하게 살려내야만 [외유내강] 대북정책을 주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끝으로 지난 6월 16일 소페

500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거쳐 북한에 다녀온 정주영 회장의 수완과 폐거에서도 "성서의 대예언"과 관련된 666이라는 숫자에 열광 눈을 휘둥그레지게 한바 있었음을 적어본다. 다음아닌 그의 노구를 실은 다이너스티 승용차(현대) 번호가 신동하게도 666에 6000을 보낸 숫자를 달고 있었으니 말이다. 비록 그 자가용차로 월경은 못하였을 망정 휴전선상에서 북한차로 옮겨타게 한 의미를 헤아려 보고 싶은 것이다.

아버지의 소한 마리 돈을 가지고 이남에 내려와서 세계적인 대기업가가 되어 1,000마리 소로 갈아드리려는 것만으로도 가슴 뿌듯한 일인데 기실은 현대산 트럭 100대에 10마리씩 실어보내고 있어서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6,000배에 이를 것으로 여겨진다.

그뿐 아니라 6666번을 만(萬)단위로 상정해 놓고 봤을 때 어찌면 남북한을 합친 인구수와 근사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남한 : 4,500만, 북한 : 2,166만). 따라서 한민족 구성원 모두의 열원을 담은 귀환행차인 까닭에 육로로 왕래하기를 평화적으로 사색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대예언의 열출자처럼 보고 싶은 것이다.

비록 북한당국에서는 저들의 혁명과업을 돕고자 남쪽 기업가들이 앞을 다투어 기여하게 되었다고 일방적인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실을 호도하기란 한계상황에 다다른 것이 아닐까 싶어진다.

비정하게도 그 후로 남파된 동해안의 잡수침 나포에 이른 무장간첩 침투확충으로 사태는 꼬이고 있지만 6,000배로 같으면서도 1,000배라고 겸손해 하는 식의 후속 부대가 줄을 이어 남북을 왕래하게 되는 한 원래 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민족통합의 물꼬를 트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결론적으로 IMF-국제통화기금체제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요체는 경제적인 개혁을 함리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정신적인 역량문제라고 보고 국민정부다운 주체성을 가지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데서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한걸음 나아가서는 영육간의 구원의 문제로 귀결되며 종국에 가서는 "성서의 대예언"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스케일의 대성판이 걸린 문제로 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정보화시대의 속성인 시스템화된 인간의 행동거지가 마침내는 바코드도 적용되고 있는 동물 수준의 노예로 전락하여 지옥(666)을 자처하게 되리라는

# 北韓의 人工衛星발사와 우리의 安保



白 奉 鍾 교수(9기)  
· 政治學 博士

## 서 론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인접국에 사전 통보나 예고도 없이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우리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을 놀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보적 혼란에 빠뜨리게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혼란과 공포를 가져오게 하였던 것은 위성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탐지 및 감시능력을 거의 완벽하게 가졌다고 알려진 미국이 이를 처음에는 2단계 로켓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였는데, 북한이 이를 부정하고 이는 미사일이 아니라 3단계 로켓에 의하여 발사된 인공위성(광명성 1호)라고 구제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계속 주장하자 보름이 지난 뒤 드디어 미국도 이는 인공위성 발사였으나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였던 것이다.

북한이 이번엔 발사했던 로켓이 인공위성이든 중거리 미사일이든 우리의 안보적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장거리 미사일은 그 용도상 핵탄두와 병행하여 개발되어야 하므로 북한이 이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로켓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와 더불어 핵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북한의 이러한 무기 개발을 일차적으로 우리 남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8월 31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안보상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에 신중히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국민의 정부는 '햇볕정책'과 금강산관광추진 등의 분위기에 휩싸여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빨리 관심 밖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과 이웃 일본의 민감한 반응을 비교하여 보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우리의 안보와 자주국방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인 사고의 전환을 위하여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국과 남북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 1.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

#### 가. 미 국

북한이 지난 8월 31일 비공개로 강력한 로켓을 발사하자 미국은 즉각 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즉각 우려를 나타내게 된 것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서보다는 NPT체제의 붕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이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최우선순위로 택하고 있는 것은 NPT체제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본질적으로 핵탄두 운반용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바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잖아도 미국은 북한이 '80년대 후반부터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이를 저지 내지 중지시키느라 당근과 채찍으로 많은 비용과 양보의 결과 1994년 10월 21일에 겨우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를 하여 증식상 당시 상태에서 개발을 중지시키고 있는 현제도 개발의 의심은 계속 깊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의심 불투명성에 대한 IAEA의 특별 사찰 거부뿐만 아니라 특하면 핵개발 계획의 위협으로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비밀리에 핵을 개발하고 있지 않나 노심초사하여 오고 있는 터였다. 그러므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였다면 우리 한국은 차치하고라도 바로 일본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부추기게 하는 것이고 이는 나아가 바로 중국의 핵전략을 증강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 외에도 서반에서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수차례 걸친 핵실험으로 미국은 NPT체제가 무능화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수출의 가능성마저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은 바로 한국, 일본의 핵개발 자극과 중거리 미사일의 제조로 이어지는 이른바 NPT체제 붕괴의 도미노 현상까지 상정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좋은 예의 하나는 지난 10월 1일 미·북 제3차 미사일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미사일의 개발·배치·생산 등 전반적 활동을 자제할 경우에 상응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미국은 제일차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시켜야 하며, 한편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경험적으로 가장 잘 다루어 오고 있는 북한은 또한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받아 낼 것이 확실한데 이러한 양보 속에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사항이 없는지가 우리가 깊이 통찰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 나. 일 본

지난번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던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있자마자 즉각 이를 미사일로 간주하고 국내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곧 북한이 이는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아직 미국이 이를 공식확인할 때까지 시간을 끌자, 그들은 그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온 나라가 뒤끓었던 것이다. 물론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안보위협이란 것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주일 미군기지와 미·일 신안보가이드라인 등으로 인하여 직접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그들의 의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내외의 정서와 여론의 호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정치적 분위기도 미국의 강력한 정치로 인하여 결국 한달여 울타라 수그러들었는데, 이러한 일본의 정서는 바로 중국을 자극하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 다. 중 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주변국 가운데서 중국에게 가장 미묘한 입장을 취하게 하고 있다. 중국도 기존의 5대 핵강국으로서 기본적으로는 NPT체제를 지지하

(7면에 계속)

### (5면에서 이음)

대예언을 우리 모두의 경고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구원의 문제는 저마다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며 제정신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주안에서 창조적으로 자유롭게 개척해 나가느냐 아니냐 주님을 떠나 편의위주로 컴퓨터의 답안 하나로 만족해 버리는 예수의 높으로 빠져 버리느냐의 갈림길에서 계 힘을 의미한다.

가령 뉴에이지 운동(인본주의)의 목표로 보이는 지상천국 주장(Without Jesus)에 있어서 신앙과 신념과의 혼돈을 조장해 가면서 마치 단일 세계 정부의 실현이 가능한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즉, 단일 세계 경제체제의 신설-단일 세계종교의 통합(Freemason, Roman Catholic)-

그리고 새 구세주 주장-까지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 앞에 분명하게 NO라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그 어떠한 유토피아의 건설도 인위적인 허상일 뿐 그로 인한 죄와 허물의 양산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자명함 이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당국이 식량자급에 성공한 중국 모델을 본받아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적이나마 회복시켜 가는 민주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일 교포이신 이영화 교수의 용기있는 민주화 투쟁에 감탄만 보내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인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

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9절에서 전제되고 있을새라.

한편 정주영 회장이 해낸 휴전선 허물기의 폐거도 어쩌면 같은 맥락에서 인본주의 소산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야만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평화적인 통일조국을 가능케 할 길잡이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일의 결과를 다 보전대 "성서의 대예언"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666이라는 짐승의 수가 우리 주변을 자주徘徊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경각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며

서로 열심히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는 대열에서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하겠다.

부끄럼에도 한반도를 세계의 화약고로 보고 있는 세계인들을 향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평화적인 통일 한국으로 화답할 수 있는 문화민족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무가 먼저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깨달아 결국 복음화된 통일이야말로 그 해답임을 얻든지 못얻든지 드러내 보여야 할 때라고 확신해 본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를 앞과 어리만큼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열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계14:9-11)."

(6면에서 이음)

며 미국과 공조하면서 이웃 북한이 핵과 그 운반수단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다만 북한이 끝까지 동맹 내지 우방국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안보·전략적 가치와 미국을 다루기 위한 주요 지렛대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충된 상황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위하여 국내외적 안정이 최우선 과제인데 반하여, 북한은 핵개발과 대남군사침략이라는 브리크멘십의 막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입장을 반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지할 수도 없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 러시아

주변국 중 북한의 로켓 발사를 세계에서 가장 잘 포착·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하나이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기술 지원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의 로켓 발사 시기를 전후하여 외환보라토리엄선언 등 경제적 마비와 정치적 불안으로 북한의 로켓 발사가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나 시비가 있을 때 그것은 인공위성일 것이라고 지나가는 말하듯이 평평하고 기쁜 상태이다. 러시아도 기본적으로는 미국 못지 않게 NPT체제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가장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나 워낙 국내 사정이 어려워 모든 것을 미국에게 위임하고 있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목적

북한이 대내적으로 경제적 파탄과 국제적 압력 등 모든 회색기를 무릅쓰고 기를 쓰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의 목적과 전략이 있었으나 크게 군사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군사적 목적

핵자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민족적 금지나 핵주권이니 하고, 또한 장거리 미사일은 남한을 벗어나는 범위라고 하면서 우리의 안보와는 상관없다는 정서를 가진 세력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이 개발하는 무기는 재래식이든 핵이든 그 일차적 대상은 남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일에 핵개발을 민족적 차원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우리의 안보와 무관하다는 논리를 주장하려면 차라리 북한보다 살 형편이 나은 우리 남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북한은 그 돈으로 식량 증산을 하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남한보다 우위의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경제적 한계를 가져와 이의 대체방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장거리 미사일은 일단 유사시 주일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어 군사적 가치가 있

을 뿐만 아니라 미·일 안보가이드라인에 따른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정치적 목적

정치적 목적은 김정일 통치력 강화, 대미 양보 추구, 남한의 IMF위기 극복 방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정일 통치력 강화

김정일은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북한의 권력을 승계하였으나 4년이 지나도록 북한의 주요 결정을 죽은 김일성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이른바 유용품치를 하여 오다가 정권수립 50주년을 바로 앞두고 9월 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명실공히 김정일을 통치자로 선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하여 위성 발사는 김정일의 지도력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는데 지대한 효과를 거두게 하였던 것이다. 북한은 그들이 반사한 위성을 <광명성 1호>라고 하며 이는 김정일의 지도하의 순수한 북한 자체의 기술에 의한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나라는 작대고 <사상과 총대만 강하면 강대국>으로서 강대국도 상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사기와 자부심 고취에 총력을 다하여 선전·선동하여 오고 있다. 이외 좁은 한 근거로서는 지난 9월 28일 북한의 외무 부장 최수현이 유엔총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이 추구하는 2중 잣대는 또 다른 한국 전쟁으로 20세기를 끝내거나 21세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주장한 것을 들 수 있다.

대미 양보 추구

북한은 '90년대 들면서 그들의 핵개발이 미국에 의해 제지받기 시작하자 이를 미개로 식량지원, 중유 공급, KEDO지원 등등 많은 분야에서 양보와 지원을 받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위성 발사를 계기로 미국에게 핵개발 재개와 미사일 수출 위협 등으로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우리 남한의 IMF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 투자 분위기 저해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3. 우리의 대응

가. 군사적 대응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우선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즉, 도발하지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도 북한에 상응하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여지없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대포는 대포가, 탱크는 탱크가, 잠수함은 잠수함이, 항공기는 항공기가 잡는다는 전사의 교훈을 따른다면, 바로 핵은 핵으로, 미사일은 미사일이 제압한다는 논리와 같으며, 또한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 여지력도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국제정치는 약소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논리를 따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특히 한·미 관계에서는 우리의 독자적 핵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더욱 그 표현마저 금지되었을 정도의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장의 군사적 수단으로서는 한·미·일과 긴밀한 협조하에 정교하고 완벽한 국지 및 전역미사일 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이외에도 북한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특수 정밀유도무기를 비롯한 총격력을 보유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정치적 대응

정치적 대응은 우선 우리의 기존 방위개념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발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존의 방위개념은 북한의 무력도발 억지와 침략에 대한 방위가 기본이며 이에 따라 한·미 연합전력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전시 작전통제권마저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이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이러한 오랜 습관에 길들여져 우리의 사고도 경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으로 핵무기는 고사하고 핵발전기를 11기나 가동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재처리 시설마저도 보유할 수 없게 되었고, 미사일 개발은 180km 이상은 개발할 수 없도록 미국에 제약을 받고 있는 처지이다. 이러한 선전과 약속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시하고 바로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는 없겠으나 이를 극복하고 우리의 국력과 주위의 안보환경에 있어 균형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핵과 그 운반수단을 갖추도록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도록 발사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의 준거는 우선 우리의 그러한 노력이 평화와 자위에만 목적을 두었다는 투명성 보장을 한다든지, 이스라엘과 같은 정책을 택하든지, 현재 일본과 같이 극도의 잠재적 기술을 보유하는 것 등을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과 발사의 전환은 단순히 지금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여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장차 통일 후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평화에 기여해야 하는 우리의 위상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 론

지난 8월 31일 북한의 장거리

“감기약 복용한 뒤 핵을 잡지 마세요”

줄음 물고 오는 성분함유 진정제도 삼가도록  
시속 90km때 4, 5초 줄면 차 100m 이상 '눈먼 질주'

줄음운전은 말 그대로 두번구씩 줄거나 깜빡 잠이 드는 등 집중력을 잃은 상태에서 운전자를 말한다. 시속 90km 정도로 달리는 운전자가 4~5초 줄었다면 그 사이에 자동차는 이미 100m 이상 움직인다. 죽음을 안고 달리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감기약, 진정제, 수면제 등 약물을 복용한 경우 연령별로는 체력이 약한 노인이 큰 문제로 체력을 과신하는 10, 20대 운전자들이 줄음운전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와 뉴욕 도로공사는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은 줄음운전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줄음운전을 '숨어있는 살인자(Hidden Killer)'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생체리듬에 따라 다르지만 오전 2~6시, 오후 2~5시가 줄음에 빠지기 쉬운 시간. 그래서 미국자동차협회(AAA)는 이 시간대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李鍾學(37)  
·서라벌 군사연구소장

박형, 안병하씨로서  
 알다시피 '本會報' (제8호, 1997. 12.)에 발표한 바 있는 <廣開土王碑文의 倭에 대한 研究-軍事史學的 研究方法에 의한>을 日本에서 발견되고 있는 잡지 <日本及日本人>에 투고를 했는데, 創刊110年 記念號(1998. 4.)에 <廣開土王碑文의 眞實-軍事史學的研究方法による 辛卯年記事의 檢討>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소. 일본에서 또 가장 國粹主義의 色彩가 짙은 이 잡지가 다음과 같은 編輯者註를 붙여서 달았소.

즉, "日本(倭)·朝鮮의 古代史의 重要史料인 高句麗의 廣開土王(好太王)의 陵墓刻文. 中國東北部 鴨綠江中流沿岸에서 있는 이 碑는 오랜 風雪에 노출되어 文字가 缺落되었다. 그로 인해 碑文의 解讀을 둘러싸고 明治期以來 많은 學者들에 의해 여러 가지 解釋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軍事史學的 研究方法이라는 接近法에 의해 그 解釋에 도전해 보니, 종래의 考古學이나 文獻史學으로는 알지 못했던 古代日本의 實像이 떠올랐다."

나는 그 論文에서 4世紀 後半의 日本列島の 倭國에는 構造船이 없었기 때문에, 倭의 大軍이 韓半島에 出兵하여 征伐戰爭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당시의 倭는 未開한 農耕社會集團이며, 또 鐵의 生産能力도 열세하여 征伐戰爭에 대한 發想自體가 생겨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軍事論理에 바탕을 둔 軍事史學的 觀點은, 戰爭에서 政治의 目的의 달성은 最後決戰의 勝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史實에 의해 실증되고 있다.

따라서 日本史學界의 通說, 즉 "倭는 辛卯年(391)에 바다를 건너와 百濟와 新羅를 破하고 臣民으로 삼았다"고 가정해도, 最終決戰에서 倭는 大潰·潰敗당했기 때문에 韓半島南部에 발판이 되는 근거지의 상실로 인하여 전연 「任那日本府」說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의 글을 선뜻 게재해준 寺澤健二 發行人에게 謝意를 표했지요.

박형, 그는 내 論文을 통해 碑文의 중요성과 「任那日本府」說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문제가 日本에서의 統一된 古代國家形成說과 直結된다는 것을 알고도 게재해주었는지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물고 싶은 궁금한 사항이요. 만약 日本史學者들이 내 主張에 反論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日本古代史는 붕괴되고, 再定立해야 하는 중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이유란, 倭가 391년에 韓半島에 出兵하여 百濟와 新羅를 征伐할 정도의 國家라

# 서라벌에서 온 편지

면, 4世紀 中葉(360年代頃)에 는 강력하고 통일된 古代國家의 存在를 前提로 생각해야만 가능한데, 이런 관점에서 日本古代史가 定立되어 있으니 말이지. 내 논문을 2회나 게재해 주었던 古代史專門雜誌『東アジ아의 古代文化』에서는 上述한 논문의 원고는 수렴했다는 통보만 하고 게재 여부에 대해서는 전연 알려주지 않았고, 또 日本의 碑文 研究專門家들에게도 발표한 논문을 보내주었으나, 아직 論評의 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9월 15일 화창한 날씨에 고속 버스를 타고 경주를 출발하여, 도중의 풍경을 감상하였고, 산에는 푸른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있고 비가 부르익고 있는 황색의 들과는 풍년용 예고해주는 듯했으며, 잘 포장된 도로를 질주하는 차 속에서 갑자기 눈에 매달린 감을 바라보며 나는 즐겁고 행복한 想念에 빠졌소. 이러한 때면 반사적으로 50년대의 열넷고 굶주렸고, 또 먼지가 엄청났던 비포장 도로의 여행을 회상케 되는 것은, '역시 나이는 속이지 못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소.

즐거웠던 4시간의 여행을 마치고 조선대학교에 도착한 것은 14시를 조금 지난 때였소. 학교의 규모가 거대한데 놀랐고 또 1956년경 누이동생이 광주에 살고 있을 때, 방문하여 멀리서 뵈죽한 삼각형의 지붕이 신기하여 물어봤던 그 곳을 직접 찾아온 거지요. 講義時間까지는 5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소개할 곳이 있다며 朴理事長이 데리고 간 곳은 광주시 남구 원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湖南의 대표적인 護國先烈遺蹟地로 꾸며진 裴忠祠였소.

박형,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이 곳에 와서야 裴忠祠란 이름을 알게 되었소. 湖南義兵의 선봉장으로 임진왜란(1592~'98) 당시 호남에서 최초로 의병 6천여명을 모집하여 錦山戰鬪에서 장렬히 순절한 高敬命 先生의 호국충절을 기리기 위한 賜額祠堂인데, 「裴忠祠廟庭碑文」에 적힌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소.

이 곳은 齋峰 高敬命 先生과 그의 두 아들 從厚 및 柳彭老, 安瑛 두 분을 받드는 곳이다. 재봉은 그의 호이며, 1533년에 출생, 1558년에 안문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중앙에서 근무했다. 1581년 중국의 사절을 마초하는 데에 종사관으로 참석하여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왕에게 알려져서 칭찬을 받고 벼슬은 軍資監正에 특진되었다. 그는 東萊府使를 지냈는데, 당론을 달리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시골로 돌아오고 말았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왕이 피란 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선생은 아들 종후, 이후와 함께 義兵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고,

유광과 안영이 선생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선생은 높은 품행에도 이를 사양하지 않고 앞장서서 道內에 격문을 보내어 많은 군중을 얻었다.

7월에 錦山의 倭兵을 공격하기 위해 관군인 방어사와 좌우익을 협성하여 협공하기로 약속하고, 선생은 직접 진두지휘를 했다. 전세가 불리해 졌으나, 선생은 죽음을 각오하고 물러서지 않고 적과 맞서 싸웠다. 이때 함께 전투에 참가한 유광과 안영에게, "나는 이미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했지만, 두 분은 빨리 이 곳을 빠져 나가시오." 하였으나, 두 사람은 오히려 선생을 옹호하며 함께 싸우다가 다같이 전사하고 말았으며, 둘째 아들 인후도 마찬가지로였다. 이때 선생의 나이가 60세였다.

말마를 종후는 아버지와 아우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낸 뒤에 다시 義兵을 규합하여 '복수장'이라 자칭하고 경상도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진주성 싸움에서 남강에 몸을 던져 장렬한 순절을 이루었다. 재봉 선생은 순절한 뒤에 議政府 左贊成에 추증되고, 포충사를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고 뒤에 '忠烈'의 시호를 수렴했다.

박형, 우리들은 高敬命 先生의 영정(비유져 있었다)과 위패, 두 아들 그리고 유광과, 안영 선생의 위패를 봉안한 곳인 영당에서 분향 재배하고 내려오면서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명당자리의 잔디밭에는 부녀자들이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고, 경내는 잘 가꾸어져 있었다.

罔祠堂을 올라가는 원편의 바위에 「忠奴 鳳伊·貴人之碑」라고 적혀 있었는데, 朴理事長은 그 유래를 설명해 주었소. 즉, 奴婢 鳳伊와 貴人은 高敬命 先生을 따라 義兵에 참여했고, 주인들이 戰死한 후 시신을 거두어 정성껏 장사지냈는데, 이듬해 다시 從厚(李烈公)를 따라 진주성 전투에서 주인과 함께 순절했는데, 後孫들은 高先生의 제사를 지낸 후, 奴婢의 제사도 지내주고 있다는 얘기였소.

박형, 나는 이 얘기를 듣고 훈훈하고 풍요로운 인간미를 느끼면서, 한편 元均 水軍統制使를 생각하였소. 1597년 7월 15일 溱川梁海戰에서 倭水軍의 기습을 받아 160여 척의 全艦隊를 송두리째 잃고, 부하들은 전사하고 있는 마당에, 일군 통제는 혼자 살겠다고 육지로 도망쳐서 행방불명이 되었소. 「奴婢만도 못한 비열한 統制使」하고 평가한다면, 가혹한 표현일까요?

罔祠堂을 올라가면서 朴理事長은 두 가지를 얘기해 주었는데, 첫째, 고경명 선생의 忠義精神을 기리기 위해 宣祖大君께서 포충사라 사액한 사당이며, 대원군 집정사 전국의 사원 대수가 철거되었으나, 이 사당만은 존속되었다는 것.

둘째, 임진왜란 때, 고경명 선

생과 두 아들, 高先生의 두 아우인 敬身과 敬仁, 질녀(安汝仁의 처)가 모두 節義로 죽었으며, 또 출가한 처녀가 왜적을 만나 함께 하다 순절하여 선생의 집안에서 모두 7명의 남자가 순절했다는 것이요.

다음은 당시의 戰況을 살피게 하고 선생의 偉業을 기리는 그림과 후손들이 보존하고 있었던 遺品을 전시하는 곳인 正氣館을 찾았소. 40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즉 日帝 36년간 그리고 韓國 戰爭을 거치면서 어떻게 이런 遺品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 들었소. 朴理事長의 말에 의하면, 高氏의 長孫은 학문을 시키지 않고 고향을 지키며 遺品을 보존해 왔다는 거요. 만약 과거에 합격한다면 고향을 떠나야 하니까요. 나는 高氏의 長孫은 불쌍하여라!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은 그 유품을 볼 수 있고, 또 그 분이 평소부터 "인간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는 나라에 충성하고 함치 올바른 마음을 굳게 지녀야 한다"는 말씀을 체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겠소!

박형,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그것을 본분으로 하는 군인에 있어서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에서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裴忠祠를 방문하여 이 문제를 다시 생각했으며 國難을 당하여 이런 분들이 목숨을 바쳐 투쟁하였기에 오늘의 우리가 生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이제 앞으로 歷史의 敎訓을 살려 義士·烈士들이 등장할 필요가 없는 國家가 되어야겠지요.

포충사의 답사를 마치고 오다가 송정리의 「전남식당」에서 牛參湯(소머리와 인삼을 넣어서 만든 탕)과 침주를 맛보았는데 일품이었소.

朴理事長의 말에 의하면, 식당 주인이 직접 김치 각두기를 만드는 식당이라야 음식 맛이 좋다고 했는데, 土着飲食의 美食家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라 생각했소. 저녁의 講義만 있다면 쉬고 싶은 정도로 마시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두 잔만 마셨지요. 언젠가 박형과 함께 전라도 지방을 답사할 기회가 있다면 꼭 데려가고 싶은 식당이니 기대하기 바라요.

박형, 광주의 강의를 마치고, 康津에 가서는 朝鮮時代의 實學思想의 大家, 茶山 丁若鏞이 18년간 유배생활을 하면서 「牧民心書」 등 훌륭한 저술을 썼고, 또 後學을 양성한 곳인 「茶山草堂」을 답사했고, 光陽에 가면서는 麗水에 들러 忠武公 李舜臣의 史蹟地를 답사했지요.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 기회에 特講의 내용과 함께 답사한 얘기를 하지요. 영의 건승을 빌면서...



# 丹學의 三原理



金方宇 교수 · 단학선원 지도위원

## 1. 水昇火降

丹學의 제1원리는 水昇火降이다.

이것은 곧 心臟의 불기운(心火)이 任脈(가슴맥)을 타고 내려가고 腎臟의 물기운(腎水)이 督脈(등쪽맥)을 타고 올라가는 水昇火降의 循環의 造化를 말한다. 사람이 번잡한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근심이 많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입안이 바짝 마르고 침이 쓰게 되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게 되는데, 이것은 心火가 올라가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약이 오른다>, <화가 머릿골까지 치민다>는 말도 이런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는 환기운이 성해서 腎臟의 물기운을 말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골을 말린다>는 말도 이런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약이 바짝 오르고 반민이 심한 사람이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되면 心氣가 순해져서 입안에 달콤한 침이 가득 고이게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게 된다. 이것은 火氣가 내려가고 水氣(腎水)가 오르게 되는 까닭이다. 丹學修鍊을 계속하면 인체 내에서 水昇火降의 循環作用이 원활해져서 腎臟의 眞水가 上昇하고 心火

가 내려가 입안에 향기롭고 달콤한 玉水가 가득하게 되는 것은 水火의 순환이 잘되는 증거이다. 원래 물기운은 밑으로 내려가고 불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거꾸로 되는 것이 造化의 세계요, 地天泰 괘상이다. 입안에 침이 고이면 下丹田으로 삼켜야 한다. 이 침은 玉泉이라고 불리는 정도로 靈藥이 되는데 몸을 운동케 하고 精氣를 더욱 充壯케 한다. 또한 修鍊者가 呼吸修鍊으로 水昇火降이 잘 이루어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된다. 丹學修鍊이 단순한 육체적 건강법만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련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心臟病 환자나 神經性的 만성병 질환자도 丹學修鍊으로 놀라울 정도의 치료효과를 보는 것도 水昇火降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상쾌해지기 때문이다.

## 2. 精充, 氣壯, 神明

精, 氣, 神을 인체의 三寶 또는 三元이라 한다. 이것은 곧 精이 충만하면 氣가 壯해지고 氣가 壯해지면 神이 밝아지는 精充, 氣壯, 神明的 原理를 말한다. 丹學을 養精, 養氣, 養神하는 養生法

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精은 곧 힘으로 나타남으로 精力이라고 하며, 氣란 元氣를 말하는 것이다. 大氣圈 속에서 天地氣運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氣가 막히면> 죽게 되고 <氣가 통하면> 살게 된다. 氣盡靈盡이라는 말처럼 <氣가 다하면> 맥을 못추게 되고 <氣가 꺾이면> 품이 죽는다. 반대로 <生氣가 발달하고> <元氣가 왕성해야> 환당한 氣魄을 갖게 되고 유능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丹學은 氣를 활성화하고 壯하게 하는 氣學이다. 우리 몸의 根本인 精을 충실히 하고 氣를 壯하게 하면 神이 밝아져 혜식이 총명하고 사리판단이 정확해지며 創造의 慧眼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흔히 <신난다>, <신바람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神明과 관련된 말이다. 神은 기운의 이름이다. 精神이니 精神力이니 하는 말들도 精, 氣, 神의 원만한 合一關係를 말하는 것이다. 精神을 잃으면 失神한다.

## 3. 心氣血精

마음이 있는 곳에 氣가 있고 氣가 가는 곳에 피가 따르고 피

가 있는 곳에 精이 있다. 이 네 가지 중에 心과 氣는 보이지 않고 血과 精만 보이기 때문에 心氣血精의 상호關係를 알기가 쉽지 않다.

마음이 氣를 낳는다(心生氣), 마음이 가는 곳에 氣가 따라간다(意到氣到)는 말처럼 氣는 마음으로 조절하는 것이므로 氣功修鍊은 心功修鍊과 병행해서 상호간에 交화를 이루어야 고도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

마음으로 氣를 調節할 수 있기에 一切心造, 즉 모든 것을 마음으로 創造할 수 있다는 原理에 따라 내 몸 밖의 氣도 應用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丹學修鍊이 고도의 경지에 달하면 氣를 불러올 수도 보낼 수도 있는 것이며 天地氣運을 마음대로 쓸 수도 있게 된다.



## 1. 십(十)

십(十)은 陰과 陽의 만남을 뜻하고 完成을 의미한다. 십(十)을 가로(一)와 세로(丨)의 만남, 여자와 남자의 만남, 하늘과 땅의 만남, 해와 달의 만남, 물과 불의 만남을 통한 完成과 綜合을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십>을 통해 새로운 하나(子息)가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말에는 이만큼 깊은 의미가 구석구석 담겨 있다.

不 완전한 반쪽과 반쪽이 만나는 것이 십(十)이다. 不 완전한 반쪽의 에너지가 만나 온전한 하나(一)가 되는 것이 바로 십(十)

현한 것이다.

우리의 십(十)이나 기독교의 십자가(十)나 불교의 만(卍)자나 모두 같은 근원을 갖고 있다.

男子(陽)와 女子(陰)가 만나 完成을 이루듯이 우리들 각자의 몸 속에 있는 陽과 陰 역시 完成을 이루어야 한다. 그 陽과 陰이 完成을 이루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하늘과 땅의 만남, 물과 불의 만남, 陽과 陰의 만남을 뜻한다.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結合이 이루어질 수 없고 새로운 하나가 탄생할 수 없다. 재림 예수는 곧 새로운 하나의 탄생을 의미한다. 미트볼 역시 마찬가지이다.

운이기 때문에 평소 열심히 蓄 + 氣充電해야 하며 또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性 에너지가 完成으로 승화될 때의 환희는 쾌락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劍도 劍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써야 하듯이 性 에너지 역시 함부로 써 버리면 몸의 調和를 깨게 된다.

# 性 에너지

뜻한다.

東洋思想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십(十)의 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십(十)을 우리는 陰陽의 交化라고 말해온 것이다.

이 陰陽理論은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陰陽의 交化를 통해 이루어져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女子와 男子의 육체關係를 우리 나라에선 <십>이라고 표현해 왔다. 지금은 주로 육설로 쓰여지고 있는 이 <십>은 십(十)에서 나온 말이다. 다시 말해서 여자(陰)와 남자(陽)의 만남을 십(十), 즉 완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십(十)은 하나(一)에서 시작되어 아홉(九)까지 成長發達해 온 것을 종합하여 새로운 하나(一)로 나아가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다.

혼자서는 不 완전하다. 大自然 만으로도 不 완전하고 사람만으로도 不 완전하다. 大自然이 陽이라면 사람은 陰이고 사람이 陽이라면 大自然은 陰이다. 大自然은 사람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고 사람은 또 大自然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이다. 男子와 女子가 만나 陽氣와 陰氣가 합쳐질 때 完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십(十)의 사상이다.

## 2. 십자가(十)의 의미

십자가 역시 完成과 結合을 뜻한다. 한 인간의 完成이 십자가로 표현된 것이다. 불교의 만(卍)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完成, 즉 깨달음을 그렇게 표

## 3. 性 에너지

육체關係를 完成과 結合으로 볼 때 우리는 性 행위에 진지한 자세를 갖게 되고 자기 몸 속에 흐르는 性 에너지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性 에너지 행위를 쾌락의 차원에서 해결하려 할 때 性 에너지는 스스로 조절할 수 없게 된다. 그때의 행위는 動物의 행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動物들은 陰氣와 陽氣가 잘 조화된 性 행위를 하고 있다.

男子와 女子의 육체關係를 통해서도 完成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性 행위이다. 性 행위에는 쾌락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늘과 땅의 만남, 陰과 陽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性 에너지 역시 기운이고 또한 우리 몸의 가장 중심되는 기

###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 건강 12칙 ◆

1. 고기는 적게 채소는 많이
2. 소금은 적게 식초는 많이
3. 설탕은 적게 과일은 많이
4. 식사는 적게 씹기는 많이
5. 승차는 적게 보행은 많이
6. 번민은 적게 잠은 많이
7. 분노는 적게 웃음은 많이
8. 옷은 적게 목욕은 많이
9. 말은 적게 행동은 많이
10. 비난은 적게 칭찬은 많이
11. 불안은 적게 감사는 많이
12. 미움은 적게 용서는 많이



明英男(11기)  
· 前남수원골프장 사장

# 星武人의 生活習性과 健康

## 1. 現代는 半健康時代

의학의 발달로 健康이 伸張되고 人間の 壽命이 크게 늘어남에도 不拘하고 現代人이 健康에 있어서 自信感을 喪失하고 危機感마저 느끼기 때문에 現代를 壽위 半病者時代 또는 半健康時代라고 한다.

現代는 醫學技術과 生命工學의 劇期的 發展으로 삶의 質과 體力이 크게 向上되어 人間の 平均壽命도 20세기초 30세도 못되던 것이 이제는 약 70세가 되었다고 최근의 통계에 나타나고 있다.

1995년 한국국민의 평균수명은 73.5세로 10년 전보다 4.5세가 늘어났다고 통계청의 "95생명표"는 발표하고 있으며, 人間の 수명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스텐포드대에서 의학과 신경학을 전공한 마이클 포셀 박사는 그의 저서인 "미래의학"에서 20년 내에 수명을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간의 평균수명을 끌어내리는데 주원인이 되어 온 암, 심장병, 알츠하이머병, 심장마비 등을 정복함으로써 100세 노인이 10대 소년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래의학은 인간의 수명을 재는 생명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사람들이 보다 젊어지고 그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생물학, 의학, 유전학, 윤리학 등을 고루 전공한 폭넓은 의학 지식에 근거를 둔 과학적인 예측으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DNA구조를 연구해 유전 정보를 바꿈으로써 수명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음으로 인간이 1백 50년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강지표가 향상되고, 양생양명(養生養命) 壽命연장의 장미빛 미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생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고도성장이 국민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지만 건강저해요소(HEALTH CHALLENGES)의 증가를 수반하여 반건강시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도한 도시집중 현상, 자연환경 파괴, 공해요인의 증대, 정서적 압박과 STRESS 증가, 각종 전염병, 담배·술·약 등 유해물질의 노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심각한 건강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 人間은 누구나 長壽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보람있게,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 2. 健康 개념의 변천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강은 정신적·신체적 이상(異常)의 유무를 주안으로 본 몸의 상태, 몸이 탈이 없고 든든함."으로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개념은 질병의 발생원인, 치료방법과 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신체개념, 심신개념과 생활개념에서 생활수단의 개념으로 변천해 왔다.

## 3. 신체적 개념의 건강

신체개념의 건강으로 19세기 이전까지는 건강을 육체적인 질병(Disease)이 없는 상태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건강상실이 대부분 급성전염병에 의한 것이었다는 시대적 상황과 당시의 과학적, 철학적 사조인 이원론(二元論)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으며 육체는 마치 기계와 같은 것으로 인간의 지식에 의하여 변조할 수 있으나 정신은 신의 몫이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육체중심의 건강개념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도 잘 부합하였으며 대부분의 질병을 기계의 고장과 같이 조직 또는 세포수준의 형태적, 생화학적 변화로 설명하고 있었다.

## 4. 심신개념의 건강

심신개념의 건강은 19세기 중엽부터 지배적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에서(A sound mind in a sound body)"라는 격언이 이를 상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정신과 신체를 별개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음을 인식시키고 있다.

이런 개념의 발전은 질병양상의 변화로부터 찾을 수 있는데 신체개념의 기계론적 해석으로

는 설명이 안되는 고향압, 당뇨, 신경정신병과 같은 다원인(多原因) 질병이 많아지고 당시의 의학 지식으로는 질병과 연관이 있는 이상(異常)이 발견되지 않으나 환자 자신은 불편한 상황이 명백한 경우가 非-非再하여 형태적 요인이 질병발병이나 후유증 발생 등과 같은 건강상실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한 유체적, 정신적 적응성을 건강의 척도로 생각하게 되었다.

## 5. 생활개념의 건강

생활개념의 건강은 1948년 창설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선언장(MAGNA CHARTA)에 나타나 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년의 완전한 상태이다(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and infirmity)" 인간을 문화적 가진 유기체로 규정하고 문화적 요소와 기존의 심신개념의 건강을 연결시켜 상호작용, 상호 의존하는 통합적인 상황과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질병(Disease), 자신의 불편함(Illness)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불편함(Sickness, social dysfunction that affects the individual's relation with others)도 함께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속한 것이다.

WHO 대헌장의 건강정의는 건강개념에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이나 "이러이러한 상태(a state of)"이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이상적 상황이며 담위적 선연에 그치고 있다.

한편,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이라는 상황이 정적(靜的)이며 절대적 개념으로 주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WHO의 건강개념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중요한 동적변화(Dynamic change), 예후적(豫後的)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분히 모호한 설명으로 일관된 경향이 있다.

## 6. 생활수단 개념의 건강

생활수단 개념의 건강은 일상 생활에 있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잠재력(Health potential)과 건강위해요소(Health challenges)들 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며 평행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건강은 생활의 목표(Objectives of living)로써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수단과 활

력소로 추구해야 한다."는 1986년 제정된 OTTAWA 헌장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WHO의 정적 개념인 "안녕" 대신에 동적 개념인 "평형적 생활(Well-balanced life)"을 건강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런 개념의 건강을 평형적 건강(Health Balance)으로도 표현하는데 전술한 건강잠재력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력소가 있으며 건강 危殆요소에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생활관습 요인 등이 있다.

건강 위해요소의 끊임없는 도전에 건강잠재력이 신속히 대응하고 잘 버티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상태, 평행이 이루어진 상태가 곧 평형적 건강인 것이다.

건강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및 정신적 능력은 물론 개인적, 사회적 활력소 등 긍정적 요소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건강 위해요소, 부정적 요인의 끊임없는 도전을 극복하면서 평형을 유지해가는 연속적 과정이며 지속적인 동적변화의 상태이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긍정적 요소로 건강잠재력과 부정적 요소로 건강 위해요소가 있다.

건강잠재력은 영양상태, 면역상태, 정서적 상황적응 능력, 자율치유 능력, 독자적 의결정 능력 등이 있는데 이들은 일상적 생활관습과 사회·문화적 체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식습관, 육체적 활동, 기호 습관, 지식 등 교육수준, 사회활동 등의 생활관습 요인과 가족, 이웃, 직장, 여가활동장소, 의료 제도 등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건강잠재력이 결정된다.

건강 위해요소에는 정서적 압박과 STRESS, 물리적 환경요인, 유해물질에의 노출 등이 있으며 이들은 생활환경 조건(빈곤, 위생시설 부족, 비위생적 주거시설, 작업환경 등)과 나쁜 생활양식을 유도하는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 7. 바람직한 健康管理

건강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본이요 첫째가는 가치이다. 건강은 인간의 생명이며 진리이고 뿌리인 것이다.

우리는 건강의 뿌리 위에 행복을 인생을 키울 수 있고 성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건강관리로서 생활수단 개념의 건강에서 본 첫째, 건강잠재력을 신장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이 현대인의 건강관리 요체이다.

건강잠재력과 건강 위해요소 사이의 평형적 상태를 건강이

軍人 출신으로서 말년에 大學講壇에 서다보니 노파심성 精神訓話를 자주 하게 되고, 때문에 짓궂은 학생들의 공격성 질문에 직면하게 되곤한다.

갑자기 한 녀석이 일어나더니 "며칠 전 신문에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란 말이 나오던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질문이다. "그야 '높은 신분에는

때 英國은 아직 志願兵制度였다 고 한다.

그럼에도 영국의 일류대학인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은 앞다투어 軍에 입대. 불란서 戰線으로 나가 독일군과 싸웠다.

어플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영국의 귀족 내지 상류층의 자제들로서 家門의 배경을 이용, 군

쟁이 터지자 이들 상류계층 자제들의 대부분은 영국의 그들처럼 앞다투어 軍에 志願兵役을 기피하거나 百尺竿頭에 선 祖國을 팽개친 채 留學을 핑계삼아 海外로 도피했다는 사실이 戰爭參與世代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6·25 전쟁이 끝난지도 어언 45年, 政權이 7번이나 바뀌고 先進國 문턱에 이르렀다는 이 시점까지도 兵役非理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으니 참담한 마음을 억제할 길이 없다.

兵務廳의 元某 准尉를 통한 지도층 인사들의 兵役非理 문제가 운봉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한 자가 엇제인데 또다시 高位公職者 자제들의 兵役非理가 매스컴을 타고 있으니 可否를 더려운 것이다. 사실상 이 나라에서 그래도 志願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지도층 인사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집지 않다.

신성한 國防의 責務를 놓고 輕重을 따진다는 것을 語弊가 있지만 굳이 따진다면 이들 지도층 인사들의 몫이 더 커야 한다는 論理가 전혀 부당한 것만



金國璋(7기)

은 아니다. 때문에 고위 공직자 등 지도층 인사들은 자제들의 몸이 좁 不實하더라도 솔선하여 軍에 보내야 한다. 이렇게 모범을 보여줄 때 國民和合도 이루어지고 도덕성이 땅까지 버린 이 땅에 선비정신인, Noblesse Oblige 精神이든 간에 道德社會의 기틀이 마련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結論的으로 나는 강단에 서는 한 학생들로부터 진부한 '할배'로 놀림당할 망정 '너희들은 출세하면 꼭 'Noblesse Oblige' 정신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勉勵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 講壇餘談

그에 합당한 道德的 義務가 따른다.'는 불란서 말이지"라고 답변하니 "그렇다면 이 나라의 높은 사람들은 왜 이 말의 뜻을 모르고 사느냐"는 거다. "넌들 야! 그 분들에게 여쭙어 보시게."라고 응수를 했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은 떨떠름하기 그지없다.

지난 8월 초 도하 신문지상에 「현직 장·차관급 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 高位 公職者의 자제들이 疾病을 理由로 군대에 가지 않은 비율이 일반 국민 자제들의 그것에 비해 2배가 넘는 다.」는 내용이 게재된 바 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새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또 한번 학생들의 질문 공세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정당한 事由로 兵役免除을 받았다는 兵務廳 當국자의 해명이 있었지만 質問은 고위 공직자 자제들의 成長環境이 일반 국민들의 그것보다 결코 劣惡하지는 않을텐데 왜 병역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病弱한 썩가 고위 공직자 가정에 많느냐는 내용이 될 터이다.

물론 내가 대답해야 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그분들에게 여쭙어 보게나."하면 그만이지만 講壇에 서는 사람으로서 곤혹스러운 마음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에 가지 않거나 최전방으로 나가지 않아도 크게 指彈을 받지는 않을 터였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自願하여 軍에 입대, 戰場으로 나아가 싸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Noblesse Oblige 정신'의 발로요, 영국 상류계층 사람들의 自負心이기도 하다니 부러운 생각이 든다. 이러한 精神이 한때 'Union Jack'을 5大洋에 휘날릴 수 있게 한 原動力이 되었고 또한 오늘날 영국사회에 王室과 貴族階級이 존재할 수 있는 背景이라고 하니 理解가 간다. 우리 나라에도 오랫동안 '兩班'이라는 귀족계급이 있었음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선비정신을 발휘, 영국의 귀족처럼 국가가 어려울 때 앞장서 목숨을 바쳤거나 백성들에게 餓饉이 되었던 예는 그리 흔치 않다. 오히려 그들 대부분이 일반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抑壓과 收奪을 일삼았다는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을 뿐이다.

日帝下에서 양반계급은 몰락했고, 8·15解放과 더불어 고위 공직자나 부유층 등 새로운 상류계층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선비정신이나 Noblesse Oblige 정신과는 道德性을 지니지 못한 '꼴بن 상류층'이었음이 분명하다. 6·25전

## 世代別 느끼는 速度感覺

- 10대 세월은 거북처럼
- 20대 세월은 걸음마처럼
- 30대 세월은 뿔박질처럼
- 40대 세월은 화살처럼
- 50대 세월은 제트가처럼
- 60대 세월은 미사일처럼 간다.
- 60대는 해마다 다르고
- 70대는 할마다 다르고
- 80대는 나날이 다르고
- 90대는 시시각각 다르다.

그러나 가장 생산적인 나이는 65세에서 95세라고 이는 침언이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늙는 일이며, 가장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는 것이라고 했다. 아름답게 늙기 위해서는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라 한다.

(10면에서 이음)

라고 한다면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의 건강관련 형태가 된다. 개인의 형태가 집합될 때 생활양식 또는 생활습관으로 표현된다.

과거 전염병 시대에는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일단 치료되지만 하면 병 걸리기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었다.

한편 현대병, 인조병, 문화병, 성인병으로 일컬어지는 대부분의 질환들은 그 병의 경과가 비가역적(非可逆的)이어서 치료가 이루어지더라도 병 발생 이전의 상태로 완전 회복하기는 어렵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일도 치료효과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현대의 건강과 질병관리에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일이 질병치료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물론, 건강과 장수비결은 무리

하지 않는 것이다.

건강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체시계를 지키는 것이다.

인간 개개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몸이 요구한 대로 마음의 TACIT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활

우리는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어가나니, 세월은 살결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열정을 상실할 때 우리의 영혼(靈魂)이 주름살진다.

Nobody grows old merely by a number of years. We grow old by deserting our ideals. Years may wrinkle the skin but to give up enthusiasm wrinkles the soul.

방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중용과 중도(中道)를 지키며 리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三多三少一禁의 生活이다. 많이 움직이고(多动),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쉬고(多休), 다양

한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며(多接), 음식은 적게 들고(少食), 술은 적게 적절히 마시며(少飲), 담배는 아예 끊어(禁煙)버리라는 것이다.

넷째, 平生 추구하는 일(Life

work)을 가져야 한다. 즉, 날까지 자기가 할 일이 있고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은 몸을 건강히 유지할 수 있다. 적당한 일은 생활에 활력소를 주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사무엘 울만이 지은 "청춘(YOUTH)"이라는 詩가 있다. 二次大戰時 이름모를 부인이 백아더 장군에게 보낸 시(詩)로서 그는 이 詩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 필리핀을 탈환하고 對日戰을 勝利로 이끌었다고 한다.

戰爭後에도 백아더 장군은 책상머리에 놓고 항상 애송한 시로, 外國의 경쟁자 사이에 널리 보급되고 파급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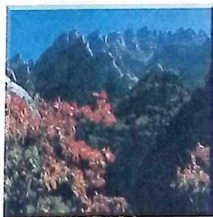
이 시는 戰後 日本經濟人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레이건 대통령, 나카소네 총리, 김종필 총리 등 세계적 유명인들이 이 시를 애송하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이 시를 토론회장에서 외을 정도로 애송하고 있다. 이 시를 통하여 항상 젊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는다고 한다.

필자가 좋아하는 건강관련 시의 일부분을 紹介하면서 空軍士官學校 동문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중앙고속은 언제나 고객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고속사업	· 고속버스 400대 · 화물운송	535-4122~3
관광사업	· 국내, 해외, 안보 관광 · 금강산관광	735-1235~7
정비사업	· 1급자동차 정비공장 (성수동, 화성)	466-5733



금강산  
전화:735-1235



육군사관학교  
전화:976-6454~5



판문점  
전화:266-3350



제3땅굴  
전화:(0348)945-0303

 (株) 中央高速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3 대표전화 : 418-6811